

# 책으로 찾는 세계각국 서사문학의 원류

## 고대인 원형적 심상 집대성한 상상력과 환상의 보고

북러시아의 한 민담에서는, 소녀가 암소의 뼈를 정원에 묻고 거기에 물을 준다. 뼈가 씨앗이 되어 '소(牛)나무'를 키울 것처럼. 종교학자 엘리야데의 소설 「벵갈의 밤」(세계사)에서는 인도처녀가 나무와 성교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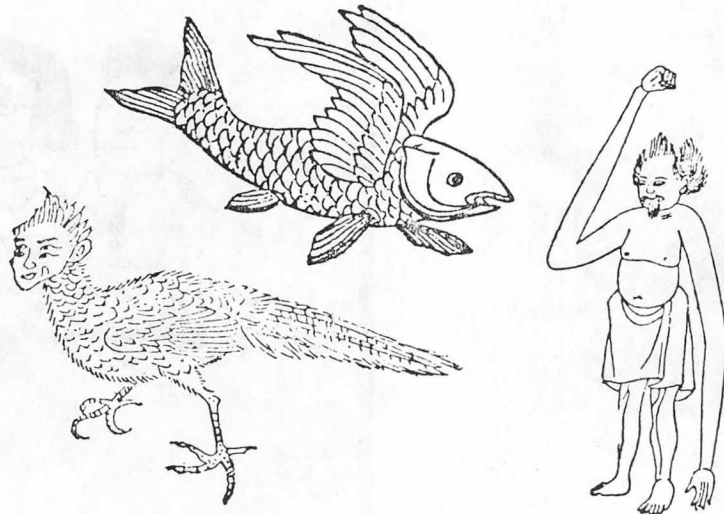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신화·전설·민담의 '윗갈래'인 설화에 대한 "참조 및 인용들은, 논증이 아니라 예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민담의 역사적 기원」(프로프저, 최애리 역, 문학과 지성사)은 말한다. 어떠한 방법론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없는 영역이며, 방법론 자체의 정합성이 문제되는 체계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론의 정립 못지 않게 설화가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에 대한 탐구 역시 또 하나의 설화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를테면 그리스신화와 유대민족의 신화이기도 한 구약성서가 후대의 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구는 거의 미친 것일 것이다. 조화를 중시하는 헬레니즘적 요소와 피의 냄새가 짙은 헤브라이즘적 요소가 타원형의 두 꼭지점이 되어 작금의 테두리를 지닌 문화를 형성시켰다는 '상식' 선에서 호기심을 그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터이다.

### '신화신화시대'의 설화집과 이론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지프스적 면모를 지닌 영혼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듯 신화학, 넓게는 설화학 관련서적들이 줄을 잇는다. 「신화의 진실」(쿠르트 휘브너 저, 이규영 역, 민음사), 「역사와 신화의 재발굴」(제람 저, 안경숙 역, 대원사), 「세계의 영웅 신화-아폴로, 신농씨, 그리고 개구리왕자까지」(조셉 캠벨 저, 이윤기 역, 대원사), 「신화의 힘」(조셉 캠벨 저, 이윤기 역, 고려원) 등이 그것들이다. 이론서들 외에 사람이 동물로 변하는 '신화소'를 지닌 것들만 모은 「메타 포포시스」와 가제 「생존의 신화」 등의 신화집들도 올해 상반기 중 출간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세계최대의 속화' 또는 '설화문학의 백미'라 불리는 「아라비안 나이트」(버튼 저, 김병철 역, 범우사)와 중국 最古의 대표적 신화집이자 유학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정신의 또다른 커다란 계통을 확실히 해주는 「山海經」(정재서 역주, 민음사), 자료의 바다인 중국설화를 한 그물에 건어올린 「중국신화전설」(원가 저, 전인초·김선자 역, 민음사) 등은 서구편중의 설화서 거기에 균형을 맞춰주고



왼쪽부터 용, 활어, 장비국의 사람, 「山海經」중에서.

있다. 특히 마지막 두 권은 1種2冊인 양 상호 참조하며 읽으면 내용의 이해도와 독서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산해경」은, 초판 서문에 의하면, "중국의 모든 반주지주의 산물, 이를테면 불로불사의 신선, 永生의 유토피아, 李白의 자유와 환상 등 낭만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의 문학예술적 실재를 가능케 했던 정신적 원천"이다. 이러한 "이단의 정신"은 「포박자」에로 계승 발전되고 결국 도교라는 거대한 상징체계를 구축하여 유교와 대립되는 유력한 이면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역주자 정재서(梨大 중문과)교수는 '해제'에서 밝힌다. 서구의 신화가 날개달린 용이나 날개달린 말 정도를 보여주는데 비해, 동물의 신체를 10분할쯤하여 그것의 조합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주는 듯한(그림 참조) 이 책은 또한 황지우씨의 「山經」과 박인홍씨의 「벽 앞의 어둠」 등의 작품생산을 촉발시키기도 해 화제가 된 바 있었다.

「도론편」의 제4장을 「산해경」의 연구에 바치고 있는 「중국신화전설」은 공자의 '괴력난신論'에 의해 박해받아 2천년 넘게 쇠진하던 중국설화를 「그리스신화」처럼 완벽한 구성을 갖춘 이야기로 '부활'시킨 책이다. 저자는 신화의 왕위를 가진 「그리스 신화」에 대해 한편으로는 콤플렉스를,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월등히 반대하며 상상력의 폭이 넓은 '中華'의 신화에 대해 자긍심을 지닌듯, 수시로 그리스 신화와 비교를 한다. 중국설화의 프로메테우스인 夙(夙)은 상제의 미움을 받아 죽지만, 그 뱃속에서 아들이 튀어나와 과업을 계승하게 된다는 등 각편의 이야기들은 동양적 상징의

봉우리들로 이어져 상상력의 산맥을 이룬다. 그 이야기 끝에 "들불이 붙어 온 들판 풀이 다 타버리지만, 봄이 되어 봄바람 건듯 불면 그 풀은 다시 살아난다"는 백지이의 시 「草」를 인용해 감동을 폭발시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신화적인 비평가 故 김현씨는 이 책의 抄譯本을 읽은 듯, 「행복한 책읽기」에 "날으는 양탄자를 만들어낼 만한 상상력을 갖지 못했던 중국인들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피땀을 흘리는 말을 꿈꾸었다"는 구절을 남겼는데, 「중국신화전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 흥미를 더한다. 원가는 "노반은 나무를 깎아 학을 만들어 그것을 타고 7백리를 날았다. 기공국 사람들은 나는 수레를 만들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다녔다... 그(신화적 환상을 통하여 비행에 관한 과학적 예언의) 정확도는 '날으는 양탄자'와 같은 원시적 상상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빨리 걷는 구두"를 만들어낸 서양신화의 예도 함께 거론한다.

'천일야화'라는 제목으로도 친숙한 「아라비안 나이트」는 '세계적 결정본'으로 공인되는 버트版 영역본을 원본으로 삼아 제7권까지 출간됐다. 전10권으로 완간할 이 책은 '프레임 테일(frame tale)'의 원조. 독립된 이야기들이 연속되는 이같은 구성법은 '데카메론'이나 「켄터베리 이야기」 같은 걸작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번에 나온 버트版은 '저자'가 현지답사를 하고, 산재·구전되는 '자료'를 직접 채집·분류한 뒤 "人類學적 註"를 첨가시킨 것이라고 작가 安東林씨는 소개한다. "아랍문학의 정수", "대중문학의 효시", "회교(사라센)문화

의 妖花" 등의 현란한 수식어와 함께 '중세아랍설화大系'라는 비유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모든 강들이 바다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서 개구리 왕녀에 대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발견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프로프의 의문에 대한 응답인 「민담의 역사적 기원」은 북러시아 민담을 연구해 "(설화란) 일정한 구성을 갖는 장르로서, 결국, 발생적으로 원시사회의 제의 및 사고 개념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풍요한 설득을 통해 밝힌다. 저자가 북러시아의 민담을 자료로 삼은 것은 "민담의 기본적 유형을 고려"하며, "(민담이 설화에 대해) 몸매에 대한 손이나, 나무에 대한 잎사귀와 같지 않다. 부분이면서도 그것들은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바, 여기에서도 하나의 전체로서 간주되었다"고 밝힌다. 민담연구가 곧 설화연구라는 것이다.

「신화의 진실」은 신화학의 방법론과 그 연구결과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한 저작물. 연구대상은 그리스신화이지만, 고대문화에 나타난 신화와 유희된 및 바그너의 예술세계도 폭넓게 다루면서, "고전물리학의 실체론"에서 추출한 몇 가지 요점이 역시 신화적인 것에서도 일치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문학, 기독교, 현대 회화 및 정치영역에서 신화적인 것의 원형을 찾아내려 하는 데 있다.

### 고대인의 현실과 현대인의 꿈 다뤄

그에 의하면 현대는 대체종교, 구원론 혹은 정치신조 등 "신화신화예로의.도피" 시대라는 것. 각주로 처리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단" 이야기는 "국가신화"의 한 예가 된다. 선수 개인이 국가와 동일화되고 국민 전체와 동일시되는 그 순간은 신화의 세계라는 게 저자의 말이다.

위 책들의 역자들은 "상상력과 환상의 寶庫"로서 고대인의 현실과 꿈에 뿌리를 둔 원형적 심상의 집대성이며, 특정한 종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뜻깊은 의미가 담긴 읽을거리"라고 입을 모은다.

—김중식 기자